

38과 선한 사마리아인 - 김현호 목사

(앞이 잘렸어요)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젊은 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어진 모든 교제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
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
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
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공과의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익숙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결코 가볍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25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어떻게 들려지게 되었는지 지에 대한 그 배경을 먼저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영생은 우리에게 비단 중요하다는 말가지고는 부족할 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그 영생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초점을 맞춘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보면 우리가 가끔 내 삶에 있어서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듯이 다른 사람을 테스트하는데 때론 아주 가볍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렇게 이런 그 교회학교에서 공과시간에 또는 분반시간에 나누어지는 교제 내용들 또는 설교시간에 나누어지는 그 말씀들이 사실은 결국 가벼운 내용들이 아니고 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하나 더 고민하는데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퀴즈 내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이들 모아 놓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퀴즈 이걸 뭐죠? 저걸 뭐죠? 그런 그냥 퀴즈용으로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들의 인생에서 너무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리가 첫 번째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 율법사는 분명히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사람을 향해서 뭘 주길 원하는지 알고 있던 사람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문제를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용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이죠 사실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는 마치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인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지금 두 가지의 잘못을 이 질문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시험거리로 그냥 가볍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지식을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7분51초 안들림)하나님의 은혜가운데서 주어지는 문제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뭘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하시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그에게 제시한 것은 그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죠?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기록하고 완전하신 율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나타내다 보면 분명히 자신이 할 수 없는 무능함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배경에다 깔고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을 아주 잘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을 잘 이야기 한 거죠.

이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겉껍데기는 멀쩡한데 안은 비어있는

참 이게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대답이 옳다

네 말은 맞다 이 말이죠

너는 정답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네가 진짜 행하고 있냐? 이대로?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네가 지금 그대로 살고 있냐? 한 번 살아봐라. 이말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너를 발견할 것이다

죄인 된 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지적인데 이 율법사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 율법사의 목적은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지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딱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이제.

자기를 이제 더 어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 율법사의 속성이 딱 드러나는거
예요

겉데기만 멀쩡하고 안은 시체가 썩는 더러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
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이목이 다 자기한테 집중 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당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님을 딱 시험하고
질문을 던지고 말을 주고받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목했을 거 아니
예요?

어떤 말이 오고 가는가?

자기를 옹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그럼 누구입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하는 거죠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
더라

이곳 예루살렘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이죠.

거기에 반해서 여리고는 뭘니까?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땅에 들어올 때 처음에 점령한 성이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성에 대해서 저주를 내렸죠.

자 여호수아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저주 받은 성입니다.

물론 물론 환경적으로 보면 여리고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완전히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이죠.

그곳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건 뭘니까?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 영혼이 거의 죽게 되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제 영원히 멸망할 그런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누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0장 31절 돌아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침 그 때 그 강도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그곳을 한 제사장이 그리고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사의 본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율법에 무엇이 기록돼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을 때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을 분명히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정작 사랑을 베풀 시점이 되자 그 사랑을 베풀 걸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열심히 사는데 그 껍데기에 비해서 알맹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는 무엇인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율 이 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 갔을 지나 갔을 때 그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누가 보고 “아이 여보시오? 아 저기 강도만나는 사람 거의 죽어 가는데 지금 거반 죽었는데” 거기 있잖아요? 거반 죽었는데 “왜 그 사람을 안 돕고 그냥 지나갑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아는 율법에 레위기 21장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레위기 21장 1절에?

그리고 대 제사장은 심지어 자기 가족들이 죽은 그 시체조차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들은 그 어떤 그런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핑계 댈 수도 있어요

“아이구 내가 안 돕고 싶어서 안 돕는 게 아니고 아유 율법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성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지키는 거니까

하지만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부수적인 것들을 지키다 라고 이야기 하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 드림 드렸으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뭐 괜찮다 이거죠

그것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그런 핑계거리로 사용했던 말이에요

핑계거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차리는 거죠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 속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죄인 된 인간이 어떤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거죠

그런데 그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를 붙잡고

그들의 지식, 열심, 종교생활 이런 것이 결국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실제 생명 없는 그들의 껍데기 생명 없는 껍데기 그게 뭐에
요?

생명 없는 껍데기 그게 시체죠 그게

그게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사실 강도만난 자는 같은 부류의 인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그 길을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 돼 있잖아요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사장이 여리고로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제사장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
갔다 이 말이에요 같이

여러분(안들림 19분16초) 강도만난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자 라는 거죠

하지만 껌데기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들은 뭔가 있어 보이고 강도 만난 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누구를 지적하는 거겠어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 던진 그 율법사를 향한 말이죠

너도 껌데기는 있지만 알맹이는 죽은.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너는 그 것을 행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너는 강도만난자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 33절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 가죠

어떤 사마리인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죠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감정이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건짐을 받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건 뭘니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한 번 볼까요?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

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율법의 뜻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이 누구 누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 돼 있는 거죠.

그 율법이 받아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이 율법사는 자기가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22분47초 다음 말이 안들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드러내려 오신 분이대 이거죠.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기름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죽어가던 한 영혼이 건짐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막은 뭘니까?

당장 위급한 생명은 구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회복을 위한 장소죠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바로 그 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인이 주막에다가 두 데나리온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나 두 데나리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있던 은혜와 진리를 말한다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있던 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충만하더라

16절 17절 함께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에 은혜와 진리를 더하셔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아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교회에다가 그 구원받은 사람의 더 성장됨을 부탁하고 떠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읽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죽 얘기하고 이제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참 율법사에게서 중요한 말이죠?

지금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율법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끌어내게 된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 던진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는 철저하게 지금 그 안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들어가 지 못하고 바깥에서 지금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시험하는 자로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지금 그 안으로 지금 꼬집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율법사를 네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앉아서 나를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그런거 할 상황이 아니고 너는 실상 강도만난자고 너는 껍데기 밖에 없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다.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

너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그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는 전혀 전혀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 한 거죠

끝까지 바깥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강도만난자고 네가 실상은 죽은 자인데 죽어가는 자인데 너에게 지금 누가 제일 필요하냐?

그것을 묻는거거든요?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모습 가운데서 보면은 이 율법사는 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간 거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 해 볼 것은 우리가 가끔 그 아까도 첫 번째 교훈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먼저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또 내가 먼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수 있죠?

오늘 배운 게 뭐지?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했어?

물어볼 수 있죠.

그게 실상은 그 내가 질문하는 그 질문조차도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건 내가 이 율법사와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죠?

자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청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 율법사를 그 말씀 안으로 자꾸 초청 끌어들이려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과를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하는거지 그냥 구경꾼이 되고 겉만 꾸미고 지식을 논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한 것은 그 뒤에 정말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제 2의 제 3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사 그런 사 사마리아인이 됐기 될 리가 없었겠죠.

왜냐면 그는 철저히 구경꾼이었으니까

그냥 시험하는 자에 불과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 사로잡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제 2의 사마리아인 제 3의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가끔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같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순종 그죠?

이건데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좀 그런 걸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결국 가볍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직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훈들이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지고 또 우리를 사로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담고 제 2, 제 3의 선택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